

Missionaries:  
Thursday Morning Email Devotion for September 28, 2023

Aloha MPC ‘Ohana,

I was talking with a young man who’s in seminary the other day. He is full of all the zeal and ardor of youth, and he told me rather excitedly about how some missionaries had recently come knocking on his door. So he asked them inside his home, where he then spent the next hour debating theology with them. In fact, from his perspective, he hadn’t just debated theology; he had landed some major blows to their beliefs.

“How did it end?” I asked him.

“They finally got frustrated and left,” he said. “But not before I gave them a lot to think about.”

Uh-huh.

Long ago, to be honest, I had a similar passion for trying to dismantle the beliefs of various missionaries who made the mistake of knocking on my front door too. As a young youth director at a Baptist church, in fact, I even went to some apologetics seminars where I was taught how to “witness” to the missionaries on my front porch. And filled with evangelical passion (and hubris) I would relish any opportunity that came my way to engage in theological jujitsu with them, until I prevailed (in my own unhumble opinion).

None of that is my approach now, however, when a missionary knocks on my door (and they do from time to time). Because I changed. Or, maybe I should say, something changed me.

It happened almost thirty years ago now, when I was living in Australia. One sweltering Saturday afternoon, there was a knock on the door of our flat. And when I opened the door, there stood Elder Brian from Idaho in his white shirt and black tie, sweating in the humidity. And beside him was Elder Hector from New Mexico.

“Come in. Let’s talk,” I said, smiling slyly to myself while thinking, “‘Come into my parlor,’ said the seminary-educated spider to the flies.”

“You’re from America, aren’t you?” Elder Brain said to me, smiling nervously. “I haven’t spoken to anyone else from home since I got here,” he added as an afterthought, speaking perhaps to himself or Elder Hector as much as to me. And for just a split second, I heard it: the hint of homesickness in his voice.

And that just pierced my heart. I looked at Elder Brian and Elder Hector sitting there on my couch, their white shirts drenched in sweat. They looked hot and tired.

And they were *so* young. Like they weren't even old enough to shave. Like two months earlier, they were probably still in high school. Only to now be so very, very far away from home.

"Would you guys like a glass of water or something?" I asked.

To my surprise, they said, "yes, please," and "thank you." It *was* a little hot out there, Elder Hector observed.

"It is," I agreed. "I bet you guys put in a lot of kilometers on your bikes. How is your – um – mission going?"

"Good," they smiled, nodding enthusiastically. "But no conversions yet," Elder Brian let slip, a little sheepishly, while Elder Hector shot him a reproachful glance.

"Australia is a pretty secular place," I said sympathetically. "Are people here treating you well?"

As soon as I asked that, I realized that I did in fact hope that people were being kind. Because, much to my own surprise, I realized that something inside me actually cared about these two kids sitting in my living room.

"How long will you be here?" I asked, now welcoming genuine conversation with them. "When did you last talk with your families? When will you see them again? I bet they are – um – proud of you."

"I hope so," Elder Brian said, and Elder Hector nodded that he hoped so too.

"I imagine you guys aren't here just to talk about home, though," I said. "Do you have something else you'd like to tell me about?"

"Yes," they said. They wanted to share their testimony with me if I'd listen.

"I need to tell you that I'm a minister," I said. "I serve at the Uniting Church around the corner. Full disclosure, I think you deserve to know that. Because it means I am unlikely to be persuaded by what you say. But I will listen if you'd like to tell me your testimony."

So Elder Brian and Elder Hector told me about their beliefs. I didn't interrupt or debate or challenge anything they said. Occam's Razor stayed sheathed. I just listened politely.

At the end of their testimony, Elder Brian asked me if I would like to come to their church or to learn more about their faith.

I told Elder Brian, thank you, but that I was secure in my own faith. "But," I said looking him and Elder Hector in the eye, "I want you guys to know that I really, genuinely respect you. It takes a lot of courage to leave your homes and families and to come halfway around the world to knock on the doors of total strangers like me. You are very brave men, and I believe that you are trying to serve God as you understand Him. I admire you very much for that."

Elder Brian blushed and softly said, "Thank you."

“There’s one more thing,” I added, “and then I won’t detain you any longer. I know you guys are a long way from home. So I want you to know this. You will always have a friend in me. While you are here, if you ever feel like you need help from somebody, my door will always be open to you. Even if you just want to talk to someone with the same American accent as you, you will always be welcome here. Come anytime. No strings attached. I promise.”

Elder Brian and Elder Hector thanked me and left. And I never saw them again. But I think of them every time the missionaries knock on my door. I always welcome them into my home warmly and genuinely. Because I really am happy to see them. Because I humbly think that that’s what Jesus would do. And because in a way that was bigger than me or them, once upon a time God sent Elder Brian and Elder Hector all the way to Australia to change my heart. And that’s my testimony.  
Me ke aloha,  
Pastor Ron

선교사:

2023년 9월 28일 목요일 아침 이메일 묵상

알로하 MPC ‘오하나,

저는 일전에 신학교에 다니고 있는 한 청년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는 젊은이들의 열심과 열정으로 가득 차 있으며, 최근 몇몇 선교사들이 그의 집 문을 두드리러 왔다는 소식을 다소 흥분된 표정으로 나에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집 안에서 그들에게 물었고, 그 후 한 시간 동안 그들과 신학 토론을 했습니다.

사실, 그의 관점에서 볼 때, 그는 단지 신학에 대한 토론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들의 믿음에 큰 타격을 입혔습니다.

“어떻게 끝났어요?” 그에게 물어 보았다.

“그들은 마침내 좌절감을 느끼고 떠났습니다.”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생각할 거리를 많이 주기 전에는 아니었어요.”

어 허.

오래 전, 솔직히 말해서 나도 내 집 문을 두드리는 실수를 저지른 여러 선교사들의 신앙을 무너뜨리려는 비슷한 열정을 갖고 있었습니다.

사실, 나는 침례교회의 청년부 책임자로서 어떤 변증 세미나에 참석하여 현관에서 선교사들에게 “증거”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복음주의적 열정(그리고 오만함)으로 가득 차서 나는 (내 자신의 겸손하지 못한 견해에 따르면) 승리할 때까지 그들과 함께 신학적 주짓수에 참여할 수 있는 모든 기회를 즐길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선교사가 내 집 문을 두드릴 때(때때로 그렇게 합니다) 그런 식으로 접근하지 않습니다.

내가 변했으니까.

아니면 뭔가가 나를 변화시켰다고 말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으로부터 거의 30년 전, 제가 호주에 살고 있을 때 일어났습니다.

어느 무더운 토요일 오후, 우리 아파트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자 흰 셔츠와 검은 넥타이를 매고 습기에 땀을 흘리며 아이다호 출신의 브라이언 장로님이 서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뉴멕시코 출신의 헥터 장로가 있었습니다.”을.

얘기 좀 하자.” 나는 생각하면서 교활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신학교에서 공부한 거미가 파리들에게 ‘내 응접실로 오세요’라고 말했어요.’

“당신은 미국에서 왔어요, 그렇죠?” 브레인 장로는 초조한 미소를 지으며 나에게 말했다.

“저는 여기 온 이후로 집에서 누구와도 이야기를 나눈 적이 없습니다.” 그는 나중에 생각한 듯이 덧붙였는데, 아마도 나에게 말했던 것만큼 자기 자신이나 헥터 장로에게도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주 짧은 순간에 나는 그의 목소리에서 향수병의 힌트를 들었다.

그리고 그것은 내 마음을 꿰뚫었습니다.

나는 브라이언 장로님과 헥터 장로님이 소파에 앉아 흰 셔츠를 땀으로 흠뻑 젖은 채 앉아 계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덥고 피곤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_너무\_ 어렸습니다.

면도할 수 있을 만큼 나이도 들지 않은 것처럼요.

두 달 전처럼 그들은 아마도 아직 고등학생이었을 것이다.

지금은 집에서 아주 아주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물 한 잔 드실래요?” 나는 물었다.

놀랍게도 그들은 “네,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헥터 장로는 밖이 조금 \_더웠다\_ 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동의했다.

“저는 여러분이 자전거를 타고 많은 킬로미터를 달렸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당신의 - 음 - 임무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좋습니다.” 그들은 미소를 지으며 열정적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나 아직 개종은 없습니다.” 브라이언 장로는 조금 수줍어하는 표정으로 말을 잇는 동안 헥터 장로는 비난하는 듯한 눈길을 보냈습니다.

“호주는 꽤 세속적인 곳이에요.” 나는 동정적으로 말했다.

“여기 사람들은 당신에게 잘 대해주고 있나요?”

내가 그것을 물어보자마자 나는 실제로 사람들이 친절하기를 바랐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놀랍게도 나는 내 안의 무언가가 내 거실에 앉아 있는 이 두 아이에게 실제로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여기 얼마나 있을 거예요?” 나는 물었고 이제 그들과의 진정한 대화를 환영합니다.

“가족들과 마지막으로 대화한 게 언제였나요?

언제 다시 볼 수 있나요?

나는 그들이 - 음 - 당신을 자랑스러워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브레인 장로님은 “그렇기를 바랍니다”라고 말했고, 헥터 장로는 자신도 그러기를 바란다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생각엔 너희들이 단지 집 이야기만 하려고 여기 온 것은 아닐 것 같은데,” 내가 말했다.

“나에게 더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나요?”

“그렇습니다.” 그들이 말했습니다.

내가 들으면 그들은 자신의 간증을 나에게 전하고 싶어 했습니다.

“내가 목사라는 걸 말해주고 싶어요.” 내가 말했다.

“나는 모퉁이에 있는 연합교회에서 봉사하고 있습니다.

전체 공개, 나는 당신이 그것을 알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말에 내가 설득될 가능성이 낮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나에게 당신의 간증을 말하고 싶다면 나는 들겠습니다.”

그래서 브라이언 장로님과 헥터 장로님은 저에게 그들의 믿음에 대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는 그들이 말하는 어떤 것도 방해하거나 토론하거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Occam의 면도날은 칼집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냥 예의바르게 들었네요.

간증이 끝나자 브라이언 장로는 나에게 그들의 교회에 가고 싶은지, 아니면 그들의 신앙에 대해 더 배우고 싶은지 물었습니다.

저는 브라이언 장로님에게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 신앙이 안전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와 헉터 장로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내가 정말로 여러분을 진심으로 존경한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집과 가족을 떠나 지구 반대편으로 와서 나처럼 전혀 낯선 사람들의 문을 두드리려면 많은 용기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은 매우 용감한 사람들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이해하는 대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 점에서 나는 당신을 매우 존경합니다.”  
브라이언 장로는 얼굴이 붉어지며 부드럽게 “감사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남았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당신을 억류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너희들이 집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것을 안다.  
그러니 이것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당신은 항상 내 안에 친구가 있을 것입니다.  
당신이 여기 있는 동안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느끼면 내 문은 항상 당신에게 열려 있을 것입니다.  
당신과 같은 미국 역양을 가진 사람과 대화하고 싶다고 해도 이곳에서는 언제나 환영받을 것입니다.  
언제든지 오세요.  
연결된 문자열이 없습니다.  
약속해요.”  
브라이언 장로님과 헉터 장로님은 나에게 감사를 표하고 떠나셨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들을 다시는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선교사들이 제 집 문을 두드릴 때마다 그 분들을 생각합니다.  
나는 언제나 그들을 따뜻하고 진심으로 우리 집에 초대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그들을 만나서 정말 행복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하실 것이라고 겸손하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나 그들보다 더 큰 의미에서, 옛날에 하나님께서는 저의 마음을 변화시키기 위해 브라이언 장로님과 헉터 장로님을 호주까지 보내셨습니다.  
이것이 제 간증입니다.  
나 알로하,  
론 목사